

## 가정에서의 디지털 모바일기기 사용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인식

현은자\*  
김태영\*\*  
조메리명희\*\*\*  
박은미\*\*\*\*

### 논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모바일기기의 사용현황과 그것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러한 결과가 기독교 부모와 비기독교 부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기독교 가정 내에서의 모바일기기 사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설문지는 모바일기기의 보유대수, 사용현황,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모바일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대상은 경기 북부지역 5곳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부모 241명이었다. 자료 처리는 SPSS 14.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및 일원분산분석 처리하였다. 결과는 첫째, 모바일기기 사용이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부모들은 인식하고 있다. 둘째, 조사된 변인에 있어서 기독교 부모와 비기독교 부모 간에 차이는 없었다. 셋째, 모바일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부모교육의 요구가 높게 나왔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계발과 더불어 아동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기독교 부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모바일기기, 디지털 네이티브, 정보통신기술, 영유아, 부모

---

\*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인재개발학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아동학 석사

\*\*\* 성균관대학교 아동학 박사수료

\*\*\*\* 성균관대학교 아동학 박사과정

2011년 10월 31일 접수, 12월 16일 수정, 12월 23일 게재확정

## I. 서론

시간이 갈수록 현대인의 삶에서 디지털 기기와 함께 하는 시간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이던 아니던 현대인의 대부분은 하루 종일 컴퓨터의 스크린 앞에 앉아 있으며 이동 중에도 태블릿 PC, 스마트폰,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같은 모바일 기기의 화면을 매시간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재승과 진중권(2009: 122)은 이러한 시대를 ‘외로움이 일상화된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타인과 소통하기 보다는 디지털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를 소비하는 개인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터클(Turkle, 2003: 3)은 “인간의 생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점점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인간과 기술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스크린 위에 사는 것인가, 아니면 스크린 속에 사는 것인가?”고 물으며 디지털 시대의 인간 존재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스크린에 붙잡힌 현대인의 모습은 성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손쉽게 디지털기기를 조작하며 기회만 된다면 얼마든지 그것에 몰입한다. 부모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곤 한다. 디지털기기와 아동의 문제, 더 나아가 디지털 기기를 둘러싼 세대 간의 격차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는 용어를 창안해 내었다. 탭스콧(Tapscott, 2003)은 디지털 이주민인 부모와 디지털 원주민인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다르며 이에 따라 앞으로 세대 간 정보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세대 간 소통의 문제까지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더 나아가 펄프리와 가서(Palfery · Gasser, 2010: 99~120)는 아이들이 인터넷 상의 정체성 즉 디지털정체성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아이들이 정서·행동문제나 디지털 콘텐츠 소비의 중독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Small · Vorgan, 2010: 105~125). 그러나 디지털기술이 항상 가정 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정은희, 2009: 63). 디지털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며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 간의 연결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디지털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아동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확대이다. 미국의 아이튠즈 앱스토어 교육 섹션의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판매된 어플리케이션 1~25위 중 60%가 걸음마기/학령전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었다(Shuler, 2009: 6). 이렇듯 아이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아동교육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동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Stephen · Plowman, 008: 639). 왓슨(Watson, 2011: 58)과 같은 학자는 “아동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가정에서 부모에게 얻는 가치는 부모와 교사가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모바일기기에 의해 확산되는 정보와 사고방식의 영향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여 모바일 기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모바일기기의 사용 현황과 그것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기독교 부모와 비기독교 부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기독교 가정 내에서의 모바일기기 사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는 문화 창조자의 소명을 지니고 있는 기독교인이 새롭게 등장한 문화현상인 모바일기기 사용을 무비판적이고 무책임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가 설정되었다.

## 1. 가정 내에서의 모바일기기 사용과 그것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 (1) 가정 내에서의 모바일기기 보유와 사용현황은 어떠한가?
- (2) 자녀 앞에서의 모바일기기 사용은 어떠한가?
- (3) 모바일기기 사용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 (4) 모바일기기 사용과 가족관계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5) 부모가 인식하는 모바일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내용 및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

## 2. 부모의 기독교 신앙 여부에 따라 가정 내에서의 모바일기기 사용과 그것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가?

- (1) 가정 내에서의 모바일기기 사용에는 차이가 있는가?
- (2) 모바일기기 사용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테크놀로지와 인간

인류사회에서 테크놀로지는 언제 어느 때나 있어왔으며 무한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변화되어 왔다. 특히, 테크놀로지는 관념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닌 인간이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로 나타났으며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인간과 도구의 관계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켈리(Kelly, 2011)는 『기술의 충격』에서 언어를 테크놀로지의 한 형태라고까지 주장하며, 카(Carr, 2011: 73)는 “모든 기술은 인간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말하며 기술이 인간성의 표현임을 확인하였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 테크놀로지는 디지털이라는 어휘로 집약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모바일기기가 위치하게 되었다. 모바일기기는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기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바일기기는 스크린(화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애플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스크린이라는 시각적 자극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모바일기기의 가장 중요한 자극은 시각적 자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왓슨(Watson, 2011: 48)은 “미래에 기계와 인간의 상호작용은 대부분 구어적이고 시각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스몰과 보르간(Small · Vorgan, 2010: 63)은 “디지털 혁명을 추동하는 근본적인 힘은, 우리의 뇌가 새롭고 자극적이며 새로운 경험을 갈구한다는 사실이다. 젊은 사람의 뇌는 나이 든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테크놀로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새로운 기기와 기술적인 도구들을 더 갈망하고, 이것이 이들 사이의 뇌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한다.”고 하였다. 이는 디지털이주민인 성인들보다 디지털 원주민인 아이들이 왜 더 디지털기기에 열광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왓슨(Watson, 2011: 58)은 “전 세계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어린 나이에 다른 아이나 넓은 세상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연결돼 있던 적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펄프리와 가서(Palfery · Gasser, 2010: 18)는 “이 세대는 디지털화된 삶을 살기 위해 뭔가를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없었다. 애초부터 디지털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신세대로서의 디지털 원주민을 묘사하기도 한다.

## 2. 모바일기기에 대한 이해

우리 인간이 도구를 발명한 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아직 청동기나 철기가 발명되기 전의 사회에서는 돌, 나무, 동물의 뼈 등과 같은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으며 그 이후 발견된 많은 기술적 진보로 인하여 인간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도구를 발명하였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하나의 도구도 다양한 형태의 도구로 분화되고 있다.

처음 휴대폰이 등장한 시기엔 집안에서 사용하는 전화에 이동성을 가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해마다 더 많은 종류의 휴대폰이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라 소형화되고 다기능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휴대폰 개발업체인 노키아의 휴대폰은 1980년 초반 휴대폰이 보급된 이후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더해지며 수십 단계의 진보를 거듭해 왔다. 휴대폰을 다루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가 터치스크린으로 바뀐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바이며 이미 노키아는 블랙베리(Black Berry)라는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다. 기술의 진보가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은 기기들의 소형화, 다기능화이다. 커즈와일(Kurzweil, 2007: 88)은, 1970년대 중반, 집적회로 발명의 선구자이자 향후 인텔사의 회장이 된 고든 무어가 집적회로에 집어넣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매 24개월마다 두 배로 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며, 이러한 기술발전의 속도를 ‘무어의 법칙’(Moore’s Law)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후로 이 법칙은 기술진보의 기하급수적 진보를 예측하는데 인용되고 있다. 만일 기술진보의 속도가 무어의 법칙을 따르지 못했다면 지금보다 먼 미래에 우리는 모바일기기를 사용했을 것이다.

모바일기기는 소통과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점점 더 많은 기능들은 우리가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지적,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진보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모바일기기를 잃어버렸거나 그것을 지니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굉장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하루를 보내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 첨가된 모바일기기가 선보일 때 마다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하며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최근의 신문기사(조선일보, 10월 31일)는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임을 보고하고 있다. 이 수치는 국민 10명당 4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경제활동인

구(2,500만 명)의 8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스마트폰이 우선적으로 소통의 기기임을 염두에 둔다면 위와 같은 수치는 우리사회의 소통방식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디지털기기의 사용자에 대한 임상 연구로 유명한 터클(2011)은 그의 저서 『Alone Together』에서 수많은 사례와 임상 연구를 통해서 휴대폰의 등장이 현대인의 소통방식과 그것이 인간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하면서 디지털기기 사용이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니라 피상적인 관계 맺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제1의 스마트폰 보유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시의 적절해 보인다.

### 3. 모바일기기와 가족

가정 내에서의 모바일기기 사용은 이미 보편화 되었다. 이는 성인인 부모에게만 아니라 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도 해당된다. 쿠퍼(Cooper, 2005: 286)에 의하면, “오늘날의 아이들은 어느 곳이나 편재한 테크놀로지와 함께 성장하며 심지어 책을 접하기 전에 디지털테크놀로지에 노출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디지털기기는 아동의 민감한 뇌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Small, 2008: 34). 우리 뇌의 수많은 세포들의 연결은 영유아기에 절정에 이르고 두 살 무렵의 아이의 뇌 무게는 성인의 것과 비슷해진다. 이때 모바일기기를 경험한 아동들의 뇌는 지금의 디지털이주민인 부모세대와는 다르게 배치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뇌의 가소성으로 인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유아의 뇌는 새로운 기술을 더 효율적으로 배우도록 시냅스의 연결을 만들 것이다(Small, 2008: 26). 유아는 태생적으로 놀이하는 인간이다. 삶의 모든 측면이 놀이로 환원된다. 특히, 영유아의 모바일기기의 사용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놀이의 행위와 흡사하다. 영유아는 발달단계상 모바일기기의 사용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놀이로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유아들은 모바일기기를 놀잇감의 하나로 여길 것이다.

미국의 커먼센스미디어(Common Sense Media, 2011: 9-11)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1세 이하 영아의 절반 정도가 매일 평균적으로 2시간씩 TV를 보고, 10% 정도가 모바일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4세 유아의 39%가 모바일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8세 자녀를 둔 1,384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첫째, 초기 모바일미디어 사용이 유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둘째, 세대 간, 인종 간, 소득계층 간 차이가 정보격차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 셋째, 모바일미디어 사용이 이제는 성인뿐만 아니라 유아기 자녀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가정환경은 불가피하게 유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국의 3-4세 유아들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Plowman et al., 2010)는 부모의 직업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태도가 다양함에 따라 유아의 테크놀로지의 사용 방식도 다양함을 보여주었다.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첨단 테크놀로지 기기의 영향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내외의 연구(Rideout et al., 2003: 12; 이주연, 2011: 51)에서는 부모들이 디지털미디어를 아이의 지적발달에 중요한 교육적 도구로 여기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Takeuchi, 2011: 24)에서는 많은 부모들이 디지털미디어 사용 시 아이들에게 제한하고 싶은 영역으로 소셜네트워크킹, 채팅, 인터넷서핑 등을 들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테크놀로지의 사용이 유아에게 혜택을 줄지 혹은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테크놀로지가 가정에서 작동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입장을 보인다(Plowman et al., 2010). 또한 디지털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가족일수록 식사를 함께하는 정도나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바 있다(정은희, 2009: 61).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가정에서의 모바일기기 사용이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캐버너(Kavanaugh, 2011: 96)가 “우리의 욕망과 가치, 궁극적으로 자아의 상품화는 우리가 매체와 맺는 관계를 통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주장에 옳다면 특히, 기독교 부모들은 자신과 매체와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부모와 매체와의 관계는 기독교인의 정체성뿐 아니라 기독교 부모로서 암묵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을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설문에 참여한 경기 북부지역 5곳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41명의 부모가 참여하였다. 부모의 인구학적 통계는 <표1>과 같다. 부모의 성별, 연령, 학력, 종교에 대한 일반사항 문항에서 성별은 모가 210명(87.1%), 부가 31명(13.6%)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만 31~35세 부모가 111명(4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131명(54.4%)인 대졸이 가장 많았다. 종교는 기독교 101명(41.9%), 기타 73명(30.3%), 불교 36명(14.9%), 천주교 28명(11.6%)로서 기독교인이 41.9%, 비기독교인은 58.1%를 차지하였다.

<표1> 응답자(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퍼센트)	구분		빈도(퍼센트)
성별	부	31(12.9)	학력	초등학교	1(0.4)
	모	210(87.1)		중학교	2(0.8)
	Total	241(100.0)		고등학교	88(36.5)
연령	만 21~25	6(2.5)		대학교	131(54.4)
	만 26~30	44(18.3)		대학원 이상	19(7.9)
	만 31~35	111(46.1)		Total	241(100.0)
	만 36~40	66(27.4)	종교	기독교	101(41.9)
	41 이상	14(5.8)		천주교	28(11.6)
	Total	241(100.0)		불교	36(14.9)
		원불교		3(1.2)	
		기타		73(30.3)	
		Total		241(100.0)	

#### 2. 연구 도구

총 3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부모용 설문지는 <표 2>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 6문항, 부모의 모바일기기 보유와 사용에 관한 12문항, 자녀의 모바일기기 사용에 관한 10문항, 모바일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 및 교육주체에 관한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2〉 설문지 문항 분류

대상	구분	문항수	전체문항
부모	-일반사항	6	30
	-부모의 모바일기기 보유와 사용현황	12	
	-자녀의 모바일기기 사용형태와 그로인한 가족관계	10	
	-모바일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주체	2	

###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예비설문구성은 2011년 4월 2일(토)부터 4월 29일(금)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되었으며 선행 연구(박소라, 2004; 이주연, 2011; Rideout et al, 2003; Wartella et al, 2006)자료에 기초하여 설문 문항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연구자들의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22문항으로 구성된 예비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예비설문은 경기북부보육정보센터 대집단부모교육(2011.04.30)의 일환인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교육」 참석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포는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대집단부모 교육 종결 후 총 127부의 예비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예비설문 통계처리결과에 따라 10차에 걸친 심층협의를 통해 예비설문지는 수정·보완되었으며, 그 결과 8월 20일(토) 30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완성되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의 설문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함을 고려하여 본 설문에 앞서 예비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예비설문을 바탕으로 유아교육현장전문가 3인과 아동학 교수 1인의 심층협의를 통해 설문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심층적인 설문구성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5곳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부모 264명을 대상으로 8월 22일(월)부터 9월 23일(금)까지 본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 배포와 수거는 경기도북부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해 주었다. 총 264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통계처리가 가능한 설문지 총 241부를 최종 통계 처리하였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1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

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일반적인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종교에 따른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모바일기기사용과 가족관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을 기준으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가정 내에서의 모바일기기 사용과 그것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 (1) 가정 내에서의 모바일기기 보유와 사용현황

<표3>과 같이 모든 가정이 1대 이상의 모바일기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170가정(70.5%)이 2~3대의 모바일기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타에서는 가정 내에 6대 이상의 모바일기기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도 있었다., 기타에서는 가정 내에 6대 이상의 모바일기기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도 있었다.

<표3> 부모의 가정 내 모바일기기 보유와 사용현황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가정 내 모바일기기 보유 수	1대	30	12.4	일일 사용 시간	3시간 이상	47	19.5
	2대	96	39.8		1~2시간	87	36.1
	3대	74	30.7		30분~1시간	53	22.0
	4대	29	12.0		30분 이내	53	22.0
	기타	12	5.0		사용하지 않음	1	0.4
	Total	241	100.0		Total	241	100.0
주로 사용하는 곳	집	143	59.3	주된 사용 목적	인터넷 검색	151	62.7
	직장	55	22.8		동영상	35	14.5
	이동 중	37	15.4		게임	13	5.4
	기타	6	2.5		소셜네트워킹	8	3.3
	Total	241	100.0		기타	34	14.1
	Total	241	100.0		Total	241	100.0

모바일기기를 주로 사용하는 곳으로 집이 143명(59.3%), 직장 55명(22.8%), 이동 중 37명(15.4%) 순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 대상자는 영유아가 있는 부모였으며 이를 통해 상당히 많은 수의 영유아가 직·간접적으로 부모의 모바일기기 사용에 노출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부모의 일일 사용 시간은 1~2시간이 87명(36.1%)으로 가장 높게 났으며, 부모의 모바일기기의 주된 사용 목적은 인터넷 검색 151명(62.7%), 동영상 35명(14.5%)으로 나타났다.

## (2) 자녀 앞에서의 모바일기기 사용

<표4>와 같이 하루 동안 자녀 앞에서 모바일기기 사용은 1~3번 미만 100명(41.5%), 3~5번 미만 64명(26.6%), 5~10번 미만 50명(20.7%)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1번 이상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앞에서 모바일기기 사용 시 대처방법으로 83명(34.4%)이 자녀를 참여토록 한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모바일기기를 사용할 때 자녀가 참여하도록 권유한다기보다 부지불식간에 자녀가 부모의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73명(30.3%)의 부모가 모바일기기를 사용하지만 이에 대해 조금 걱정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명(20.7%)은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를 이동시킨 후 사용한다’(6.6%)와 ‘사용을 즉각 멈춘다’(7.9%)를 합한 14.5%의 부모를 제외한 85.5%의 부모가 자녀 앞에서 모바일기기를 별 생각 없이 사용하거나 걱정을 조금 하지만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를 조용히(주의환기)시키기 위해 모바일기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71명(71%)이 있다고 하였다.

<표4> 자녀 앞에서의 모바일기기 사용형태

구분	빈도	퍼센트
일일 자녀 앞에서 모바일기기 사용 빈도	10번 이상	5.4
	5~10번 미만	20.7
	3~5번 미만	26.6
	1~3번 미만	41.5
	사용하지 않음	5.8
	Total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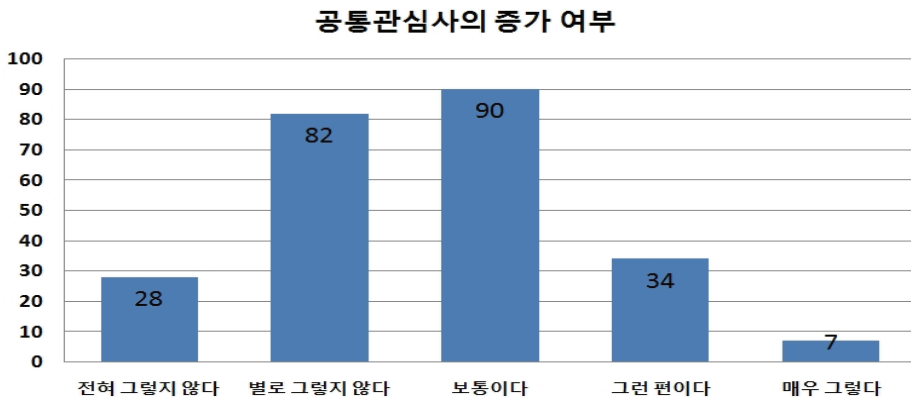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자녀앞에서 모바일기기 사용시 대처 방법	자녀 참여	83	34.4
	걱정하지 않고 사용	50	20.7
	조금 걱정하지만 사용	73	30.3
	자녀 이동 시킨 후 사용	16	6.6
	사용을 즉각 멈춤	19	7.9
	Total	241	100.0
조용히(주의환기) 시키기 위해 모바일기기 사용 유무	있다	171	71.0
	없다	70	29.0
	Total	241	100.0

### (3) 모바일기기 사용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이철수(2009)는 가족관계를 가족성원 상호간의 관계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의 상호관계는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런 관계도 다양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의 관계양상에 공통의 관심사, 친밀의 정도, 함께하는 시간의 정도를 기준으로 모바일기기 사용이 가족성원 상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하였고 그 양상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 ① 공통의 관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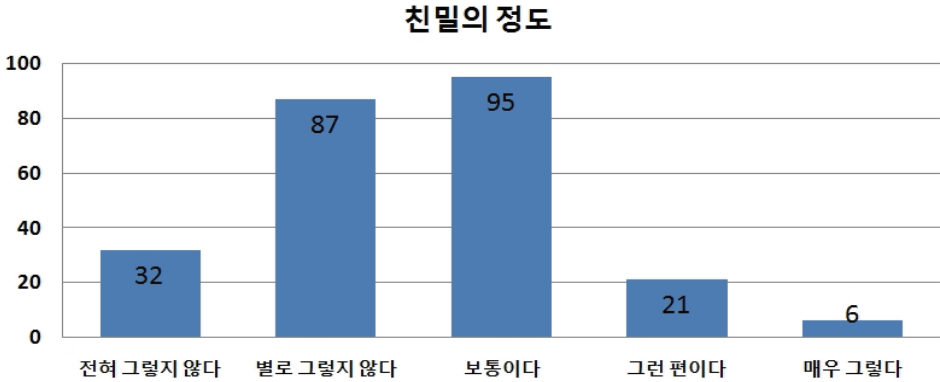
[그림2]와 같이 모바일기기 사용으로 가정 내에서의 공통의 관심사가 늘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가 90명(37.3%), 별로 그렇지 않다 82명(34.0%)으로 나타났다.



[그림2] 공통관심사의 증가 여부

② 가족 내에서의 친밀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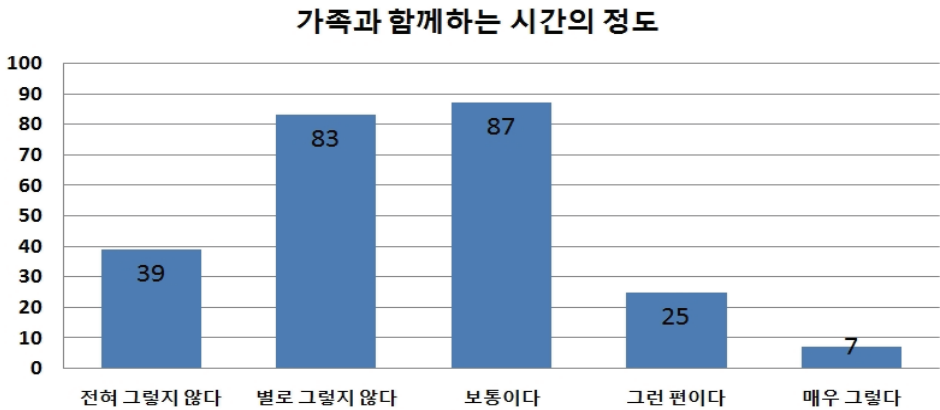
[그림3]은 모바일기기 사용으로 인한 가족 내의 친밀의 정도가 늘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 95명(39.4%), 별로 그렇지 않다 87명(36.1%), 전혀 그렇지 않다 32명(13.3%)으로 나타났다.



[그림3] 친밀의 정도 증가 여부

③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림4]는 모바일기기 사용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 87명(36.1%), 별로 그렇지 않다 83명(34.4%), 전혀 그렇지 않다 39명(16.2%)로 나타났다.



[그림4]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증가

모바일기기 사용이 가족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을 종합하면 공통의 관심사, 친밀의 정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바일기기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 모바일기기 사용과 가족관계간의 상관관계**

<표5>에서와 같이 모바일기기의 사용과 자녀 앞에서의 사용빈도의 상관 계수는 0.391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문항 간 상관관계

구분		일일 사용 시간	공통 관심사의 증가 여부	친밀의 정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정도	자녀 앞에서의 사용 빈도
일일 사용 시간	Pearson Correlation	1	-.107	-.055	-.096	.391(**)
	Sig. (2-tailed)		.097	.398	.137	.000
	N	241	241	241	241	241
공통관심사의 증가 여부	Pearson Correlation	-.107	1	.716(**)	.709(**)	-.058
	Sig. (2-tailed)	.097		.000	.000	.370
	N	241	241	241	241	241
친밀의 정도	Pearson Correlation	-.055	.716(**)	1	.789(**)	-.092
	Sig. (2-tailed)	.398	.000		.000	.155
	N	241	241	241	241	241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정도	Pearson Correlation	-.096	.709(**)	.789(**)	1	-.104
	Sig. (2-tailed)	.137	.000	.000		.109
	N	241	241	241	241	241
자녀 앞에서의 사용 빈도	Pearson Correlation	.391(**)	-.058	-.092	-.104	1
	Sig. (2-tailed)	.000	.370	.155	.109	
	N	241	241	241	241	241

\*\* p< .001

또한 공통관심사의 증가여부와 친밀의 정도는 상관관계 계수 0.716로, 공통관심사의

증가 여부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정도는 상관관계 계수 0.709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정도와 친밀의 정도 또한 0.789로 정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모두 유의도 0.000으로 0.01보다 작다.

**(5) 부모가 인식하는 모바일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내용 및 교육의 주체**

<표6>은 모바일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자기 조절 능력이 138명(57.3%), 중독 예방적 측면이 58명(24.1%), 일반적인 모바일기기 사용방법 45명(18.7%)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주체는 부모가 200명(83%)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 결과는 부모들은 모바일기기 사용에 있어 자녀가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부모를 교육시켜서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게 하는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6〉 교육내용 및 교육의 주체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교육 내용	일반적인 사용방법	45	18.7	교육의 주체	부모	200	83.0
	중독 예방적 측면	58	24.1		본인 스스로	27	11.2
	자기 조절 능력	138	57.3		유아교육 기관교사	8	3.3
	Total	241	100.0		정부	3	1.2
					기타	3	1.2
				Total	241	100.0	

**2. 부모의 기독교 신앙 여부에 따른 가정 내에서의 모바일기기 사용과 그것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 가정 내에서의 모바일기기 사용**

또한 <표7>과 같이 부모의 기독교신앙의 여부에 따른 가정 내 모바일기기 사용의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자녀 앞에서의 사용 빈도( $p < .278$ ), 자녀 앞에서 사용할

시 대처 행동( $p < .100$ ), 주의환기를 위해 모바일기기 사용( $p < .550$ ) 모두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7〉 부모의 기독교신앙의 여부에 따른 가정 내 모바일기기 사용의 차이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자녀 앞에서의 사용 빈도	집단-간	2.2629	2	1.315	1.287	.278
	집단-내	244.197	239	1.022		
	합계	246.826	241			
자녀 앞에서 사용할 시 대처 행동	집단-간	7.014	2	3.507	2.329	.100
	집단-내	359.846	239	1.506		
	합계	366.860	241			
주의환기 위해 모바일기기 사용	집단-간	.248	2	.124	.600	.550
	집단-내	49.504	239	.207		
	합계	49.752	241			

(2) 모바일기기 사용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부모의 기독 신앙 여부가 모바일기기 사용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한 결과 <표8>과 같이 공동관심사의 증가여부, 친밀의 정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모두 유의도 수준 .05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8〉 부모의 기독교 신앙의 여부에 따른 모바일기기의 사용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공동관심사의 증가 여부	집단-간	1.953	2	.976	1.085	.349
	집단-내	220.576	239	.923		
	합계	222.529	241			
친밀의 정도	집단-간	1.949	2	.974	1.161	.315
	집단-내	200.534	239	.839		
	합계	202.483	241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정도	집단-간	2.193	2	1.097	1.148	.319
	집단-내	228.290	239	.955		
	합계	230.483	241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의 부모의 모바일기기 사용 시간은 1~2시간 87명(36.1%), 3시간 이상 47명(19.5%)이었다. 부모의 모바일 사용이 가정에서 가장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 가정의 영유아들은 부모의 모바일기기 사용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외국의 연구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모바일기기에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KFF(Kaiser Family Foundatioin) 연구에서도 설문에 참여한 부모 중 80%가 매일 1~2시간 이상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미디어 사용 시간과 자녀의 미디어 사용시간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바 있다(Rideout et al., 2006: 8). 1,000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또 다른 KFF의 연구에 따르면 0~6세 아이들이 평상시 주로 하는 활동이 스크린미디어 사용 83%, 실외놀이 83%, 읽기 79% 순으로 나타났다(Rideout et al., 2003: 4).

둘째,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모바일기기를 별 생각 없이 사용하거나 걱정을 조금 하지만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통관심사의 양과 가족과의 친밀의 정도, 함께 하는 시간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모들은 가정에서의 디지털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있지만 막연한 불안감만을 가진 채 자녀 앞에서도 별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부모교육을 묻는 설문 응답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부모들은 모바일기기 사용에 있어 자녀가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신이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셋째, 부모의 기독교 신앙 여부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기독교 부모와 비기독교 부모 간에 모바일기기 사용 형태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기독교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의 모바일기기 사용 빈도, 자녀 앞에서 사용할 시 대처 행동, 주의환기를 위해 모바일기기를 사용한다는 문항에서 비기독교 부모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디지털기기 사용으로 인한 공통관심사의 양과 친밀의 정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정도에 있어서도 비기독교 부모와 차이가 없었다. 유경동(2007: 144)은『기독교 미디어윤리』에서 미디어의 긍정적인 면도 인정했지만 “주체적 사고의 상실, 인터넷 중독, 오감 확장의 한계, 그리고 미디어의 권력화와 같은 치

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김영래(2004: 235)도 전자미디어 이미지가 종교적 신앙을 기르는데 자신의 상상력을 사용하도록 촉진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바일기기에서 구현되는 많은 디지털미디어 이미지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자녀들이 디지털미디어를 소비할 때 부모로써 올바른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다. 자신이나 자녀의 미디어의 사용에 민감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만일 부모가 모바일기기의 사용을 무조건 반대한다면 자녀들은 그런 부모에 대해 답답해하고 의사소통을 포기하려고까지 할지 모른다. 펠프리와 가서(Palfery · Gasser, 2010: 112)는 “디지털 네이티브들에게는 또래 아이를 통한 학습뿐만 아니라 세상 물정에 밝은 어른들의 지도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어른들은 어떻게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접근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대의 가족이 가족관계 및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기기를 커뮤니케이션의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김종길 · 박수호, 2010). 따라서 부모들은 모바일기기의 성격을 이해하고 가정에서의 모바일기기 사용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 학자들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융합적인 사고는 ICT가 주도하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어린 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찰하고 비판하며 행동하는 부모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으며 기독교 학자들의 소명은 이들이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독교 문화 비평가인 크라우치(Crouch, 2009)가 『컬처 메이킹』에서 취한 접근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는 기독교인이 문화인공물을 바라보는 비난 혹은 모방이라는 양극단의 태도를 비판하고 문화인공물의 계발과 창조라는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구원받은 자들이 새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현대의 문화 인공물도 그와 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만국의 영광과 존귀”(계 21: 26)로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과 계발에서도 천국의 비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김영래 (2004). “전자미디어 이미지의 영향에 대한 종교-교육적 과제.”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35. 219-239.
- 김영용 (2007). 『인터넷 미디어와 놀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종길·박수호 (2010). “디지털시대의 ‘가족혁명’: 신화인가 현실인가?” 『사회이론』, 2010년 가을/겨울. 143-281.
- 박소라 (2004). 『어린이와 인터넷 미디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유경동 (2007). “기독교 미디어윤리.” 『신학과 세계』, 59. 128-155.
- 이주연 (2011). “유아교육용 스마트폰 앱에 대한 부모 인식 조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이철수 (2009). 『사회복지학 사전』. 서울: 블루피쉬.
- 정은희 (2008). “디지털기술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정책』, 59-63.
- 정재승·진중권 (2009). 『크로스: 무한상상력을 위한 생각의 합체』.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조선일보 (2011. 10. 31일자) B1면 “스마트폰 사용 2000만 명 돌파.”
- Car, N. (2010). *The Shallows*. 최지향 역 (2011).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서울: 청림출판.
- Comon Sense Media (2011). “*Zero to Eight: Children’s Media Use in America*.” California: A Common Sense Media Research Study.
- Cooper, L. Z. (2005). “Developmentally Appropriate Digital Environments for Young Children”. 『Library Trends』 54(2). 286-302.
- Crouch, A. (2008). *Culture Making: Recovering Our Creative Calling*. 박지은 역 (2009). 『문화 창조자의 소명을 찾아서 컬처 메이킹』. 서울: IVP.
- Kavanaugh, J. F. (2006). *Following Christ in a Consumer Society*. 박세혁 역 (2011).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 서울: IVP.
- Kelly, K. (2010). *What Technology Wants*. 이한음 역 (2010). 『기술의 충격』. 서울: 민음사.
- Kurzweil, R. (2005). *The Singularity is Near: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 김명남·장시혁 역 (2007). 『특이점이 온다』. 경기: 김영사.
- Palfre, J. and Gasser, U. (2008). *Born Digital*. 송연석·최완규 역. 『그들이 위험하다』. 서울: 깔리온.
- Plowman, L., Stephn, C. and McPake, J. (2010). *Growing up with Technology: Young Children Learning in a Digital Worl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Rideout, V. J., Vandewater, E. A. and Wartella, E. A. (2003). “*Zero to Six: Electronic media in the lives of infants, toddlers and preschoolers*.” Washington: The Henry J. Kaiser Family Foundation.
- Small, G. (2008). *iBRAIN: Surviving the Technological Alteration of the Modern Mind*. 조창연 역. 『아이브레인: 디지털 테크놀로지 시대에 진화하는 현

- 대인의 뇌』. 서울: 지와 사랑.
- Shuler, C. (2009). “*iLearn: A Content Analysis of th iTunes App Store’s Education Section.*” New York: The Joan Ganz Cooney Center at Sesame Workshop.
- Stephen. C. & Plowman, L. (2008). “*Enhancing learning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pre-school.*”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8(6). 637-654.
- Takeuchi L. M. (2011). “*Families matter: Designing media for a digital age.*” New York: The Joan Ganz Cooney Center at Sesame Workshop.
- Tapscott, D. (2008). *Grown Up Digital: How the Net Generation Is Changing Your World.* 이진원 역. 『디지털 네이티브』. 서울: 비즈니스북스.
- Turkle, S. (1995). *Life on The Screen: Identity in the Age of the Internet.* 최유식 역. 『스크린 위의 삶』. 서울: 믿음사.
- \_\_\_\_\_ (2011). *Alone Together: Why we expect mor from Technology and less from each other.* Cambridge: Basic Books.
- Wartella, E., Vandewater, E.& Brodie, M. (2006). “*The Media Family: Electronic media in the lives of infants, toddlers, preschoolers and their parents.*” Washington: The Henry J. Kaiser Family Foundation.
- Watson, R. (2010). *Future Minds.* 이진원 역. 『퓨처마인드』. 서울: 청림출판.

## ABSTRACT

### Young Children's Parents' Perception of the Use of Digital Mobile Devices at Home

Eun Ja Hyun(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Tae Young Kim(SungKyunKwan University)

Mary Myunghee Cho(SungKyunKwan University)

Eun Mi Park(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young children's parents perceive their use of mobile devices at home an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Christian parents and non Christian counterparts regarding the use of mobile devices at home and perception of the effect of mobile devices on family relationship.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41 parents from 5 nursery schools in north part of Kyung Ki Do. The questionnaire was consisted of 30 questions asking how many mobile devices is used at home, how to use them, and how to perceive the effect of mobile devices on family relationship. The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d One-way Anova.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s: 1) the parents are likely to use the digital devices at home not considering enough young children's presence, 2) most of them show the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effect of mobile devices on family relationship(common topics to share, time spent together, and the degree of intimacy). 3) there are no differences between Christian parents and non Christian parents regarding the use of mobile devices and the perception of the effect of devices on family relationship. 4) majority of parents answered that parent education program to enhance young children's self-control ability regarding the use of mobile is need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arents as a role model of young children need to have reflective thinking regarding the use of the digital devices in our daily lives.

Key Words: Mobile Devices, Digital Natives, ICT, Young Children, Parents